

지역 소식통

김제원평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1919년 음력 2월 19일 원평장터에 김제지역 최초로 일제 탄압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이, 103년 후인 2022년 3월 19일 같은 장소인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재현되어 눈길을 끌었다.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석준), (사)김제동화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최규섭)가 공동 주관하고 김제시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박준배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독립투사 유가족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나라사랑 선언문 낭독, 주민재현극, 만세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금산면 모악예술단의 원평장터 만세운동 재현극과 조은성의 김제무용단 기념공연은 103년 전 그날의 뜨거운 합성을 되살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검산·요촌동서
청소년 선도 가드캠페인

김제시는 지난 18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검산동(홀플러스)에서 요촌동(티미널)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가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 후 새학기를 맞이하여 음주·흡연·가출 등 청소년의 일탈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김제시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손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김제경찰서, 한국자유총연맹, 패트roller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70여명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캠페인 후 진행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은 노래방, 숙박업소, 담배·주류 판매점 등 40여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금지 스티커 배부 및 안내 등의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현안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총력

군, 간부회의 열고 대선공약 이행 우선순위 배치 건의키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지역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반영과 이행 우선순위 배치 등 입체적인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21일 오전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관련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완주군 대선공약 대응과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완주군은 이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대선공약 이행의 우선순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전북도당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포함돼 신속히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도,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후보지 선정과 산단 지정, 본격 조성 등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에 맞춰 차질없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의 관련 부처

대응에 총력전을 경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와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구축,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새정부의 문화예술 국정과제에 맞춰 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와 가맹점 발굴, 문화예술 창작 공간 제공, 문화예술인 공간 지원 등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과 재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공사와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수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국정과제에 따라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표준 공시가격에 맞춰 토지와 주택 특성을 정확히 조사·산정해 정부 정책에 맞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등과 함께 최근 3년간의 국민 주택취득 현황을 분석해 DB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부합하는 완주군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 통합 협업과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공영제 마을버스 큐비 추가확보를 통해 확대 운행과 행복콜버스 공영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군의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날 새정부 정책공약집 전수분석을 통해 24개 실·과·소가 각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명 완주군 부군수는 이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금부터 주요 내용과 세부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인력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막는다

고위험군 관리 신속 대응

김제시, 분청 직원까지 투입

김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담당 인력 확보를 위해 분청 직원을 투입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을 위하여 보건소 3층에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률 증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지장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제시는 전 부서 직원들을 매 주 20명씩 교대로 투입하여 확진자의 발생 보고, 역학조사서 작성, 환자군 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김제시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응 상황실.

(사진=김제시청 제공)

민원업무 처리 지연, 업무과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송윤주 김제시보건소장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6·1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市 승격 준비하는 으뜸도시 완주"

이돈승 완주교육 거버넌스 위원장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부장을 역임했던 이돈승 완주교육 거버넌스 위원장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돈승 위원장은 21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충분히 준비된 만큼 군민들이 일할 기회를 주시면 '일 잘하는 군수'로서 군민께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완주군은 선도적 행정과 주민회합을 통해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우뚝 서겠다"면서도 "주민의 안전권 및 환경보전 등에서 노출됐던 문제점을 협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시켜야 하고, 지자체간 경쟁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낼 지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지역현안을 꿰뚫고 있고, 전국 최초의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 완주군 체육회 개혁, 전주항공대 헬기 장주노선 변경 등 기간 지역현안 해결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다"며 "여기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민주당과의 견고한 소통체제를 구축하는 등 민선8기의 명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름 자족도시, 건강한 완주란 청사진을 통해 완주군을 명실상부한 전북 4대 도



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시(市) 승격을 준비하는 으뜸도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자족경제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짓는 복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맞춤형 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모두의 삶터

등의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인구 5만명 읍(邑) 육성을 비롯해 버스공영제 등 주민교통이동권 향상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신규 산업 및 주택 단지 조성, 수소산업 집중 육성, 로컬푸드 2.0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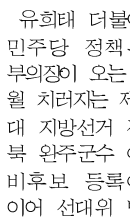
무엇보다 교육복지 지정, 삼봉신도시 중학교 설립, 군수 직속 교육담당관 설치 등의 교육정책과 함께 비봉 보은매점장 조속 해결, 완주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민정강 오감만족길 조성, 생활야구 메카 조성 등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화반 건립, 여성친화도시 인증 및 신생아 분만 기반 마련,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복지공약도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군민이 주신 기회를 단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저의 역량과 비전에 힘을 보태주시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를 명품 고장으로 만들 것"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군수 예비후보 등록

"이번 선거,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출마"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0대 지방선거 전

완주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등록을 마치고 이어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유 부의장은 21일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추진력 극대화, 경선승리를 위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부의장은 지난 20일 오전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 으뜸도시 완주 실현하기 위해 전북선관위에 완주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기본 마음으로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라며 "완주의 미



래를 책임질 군수가 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강한 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 만큼 경험을 최대한 살려 완주경제부터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유 예비후보는 "완주군을 명품 고장으로 만들고 그동안 실추됐던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이번선거가 내 자신에게는 완성된 기회이자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출마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완주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바뀌어지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늘 처음처럼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군민 모두를 섬기는 자세로 완주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800만원

내달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

김제시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800만원, 둘째아 1,3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1,7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을 4년에 걸쳐 태어난 달에 분할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부 또는 모의 1년미만 출생아이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김제시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캠페인